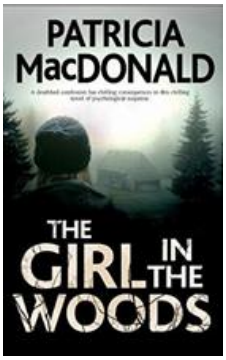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GIRL IN THE WOODS
가제 : 숲에서
저자 : Patricia MacDonald
출판사: Severn House Publishers Ltd
발행일: 2018년 2월 28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스릴러소설

*** 프랑스 판권 계약, 프랑스 제작사 영화 옵션**
*** 친구의 살인 후 멀리 떠나 살았던 주인공이 죽어가는 여동생을 만나러 어쩔 수 없이 돌아온다. 그러나 동생은 범인이 아닌 사람이 감옥에 갔다며,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하는데….**

블레어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언니 셀레스테와 함께 엘리스 삼촌 네 집에 얹혀살았다. 삼촌은 누나가 죽고 나자 어쩔 수 없이 조카들을 맡았다. 당시 삼촌과 함께 살던 여성이 어린 두 소녀가 부모님을 잃고 보육 시설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듣고는 자신이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며 삼촌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조카들과 친하게 지냈던 것도 아니고 별다른 애정도 없었던 삼촌은 그녀의 고집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락했는데, 한 때는 두 자매의 숙모였던 그 분이 곧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삼촌은 보호자 역할을 모두 떠안게 되었다.

블레어는 나치 사상에 심취해서 집 앞에 커다란 나치 깃발을 걸어 놓는 삼촌이 너무 싫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곳곳을 채운 나치 관련 기념품들도 역겨웠다. 게다가 삼촌은 강제로 떠 안은 두 조카를 향해 그 억울한 심정을 거리낌없이 표출했다. 달리 오갈 곳이 없었던 자매는 최대한 삼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블레어가 열세 살이던 해 11월에 결국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블레어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몰리는 그 날 처음으로 블레어가 사는 집에 놀러 왔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할 정도로 너저분하고 괴상한 장식이 널려 있어서 블레어가 친구를 초대한 것도 처음이었다. 그 날 몰리의 부모님은 근처 도시에서 열린 박람회에 가야 했고 몰리는 수업 시간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가지 못했다. 블레어가 쭈뼛쭈뼛 몰리를 삼촌 네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쿠키를 먹을 때만 해도 걱정과 달리 즐거웠다. 그러나 삼촌이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소란이 시작됐다. 블레어가 몰래 지원한 컴퓨터 캠프에서 안내장을 우

편으로 보낸 것이 화근이었다. 250 달러라는 참가비를 대체 누가 내줄 수 있겠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는 삼촌에게, 몰리는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앞서 블레어가 말릴 틈도 없이 대들고 말았다. 컴퓨터는 꼭 배워야 하는 거라고, 블레어를 캠프에 보내주라고 옹호한 것이다.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삼촌은 몰리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며 윽박을 질렀다. 이미 밖은 해가 져서 컴컴한데, 열두 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를 삼촌은 쫓아냈다. 결국 그 날, 몰리는 홀로 집에 가는 길 어딘가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다.

몰리의 죽음이 전부 자기 탓이라는 생각 때문에 블레어는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삼촌의 성질을 알면서 그런 상황을 만든 것, 끝까지 몰리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성인이 되자, 여전히 똑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삼촌과 아직 그 집에 얹혀 사는 언니 셀레스테에게 되도록 찾아가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블레어는 대학 졸업 후 삼촌 집이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 포코노 산 자락의 작은 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찍 사업을 시작해 꽤 승승장구하며 살아갔다.

그러나 언니가 암 투병 끝에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어느날 들려왔고, 블레어는 서둘러 삼촌 네 집으로 향한다. 혼자 열살 짜리 아들 말콤을 키우면서 근근이 살아온 언니는 블레어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이야기하다가 놀라운 비밀을 꺼낸다. 15년 전, 몰리가 죽고 범인으로 검거된 에이드리언 존스가 사실 진범이 아니며, 그 사실을 언니 자신이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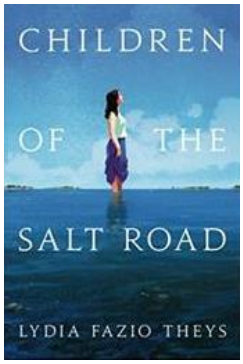
언니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 날, 범인으로 몰린 에이드리언과 함께 있었다. 에이드리언이 모는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두 사람은 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에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에이드리언은 흑인이었고, 언니는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인 삼촌이 두려워서 차마 흑인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었다는 생각은 언니를 평생 괴롭혔다. 그러다 죽기 직전에야 블레어에게 지금이라도 진실을 되돌려달라고, 에이드리언을 구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진짜 범인을 찾으라고 밝힌 것이다.

블레어는 친구를 죽인 흉악한 범인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서 고통 받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로 잡기로 결심한다. 다 끝난 사건을 헤집는 일이 성가시기만 한 경찰들 사이에서 고투를 벌이는 블레어의 앞에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패트리샤 맥도널드(Patricia MacDonald)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심리 서스펜스 소설을 여러 편 썼다. 보스턴 컬리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편집자로 일하다가 직접 글을 쓰기 시작했다. 데뷔 소설 『The Unforgiven』(1981)은 에드가 상 후보에 올랐으며 베스트셀러 『Secret Admirer』(1995)는 프랑스 도빌 영화제에서 문학상을 수상했다.

제목 : CHILDREN OF THE SALT ROAD
가제 : 소금 길에서 만난 아이
저자 : Lydia Fazio Theys
출판사: Little A
발행일: 2017년 9월 26일
분량 : 206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소설



*** "독자를 신비한 풍경과 낯선 심리적 영역 속으로 데려가는 소설. 작가는 시적인 문장과 흡입력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살아 숨 쉬듯 생생한 인물들을 그려냈다" - 『Dorothy Parker Drank Here』의 작가, 엘렌 마이스터**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낸 부부가 집과 일터, 친구들이 있는 뉴욕을 떠나 이탈리아로 향한다. 두 사람을 괴롭히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고, 엉망진창이 된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돌파구로 시칠리아 해안가 조용한 마을을 택한 것이었다. 풍경은 마치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듯 아름다웠다. 부부가 차를 몰고 몇 개월간 머물기로 한 집을 찾아가던 중, 길에서 갑자기 한 사내아이가 쑥 튀어나왔다. 가까스로 사고는 피했지만, 곧이어 아이는 마치 연기가 흩어지듯 사라지고 말았다.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던 부부는 그것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임을 알지 못했다.

화가인 캐서린은 뉴욕의 작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강사로, 남편 마크는 자그마한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축가로 소박하게 살아왔다. 결혼 10년 차, 아이 없이 두 사람만 오붓하게 살아온 평온한 삶이 뒤흔들린 건 1992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캐서린은 뉴욕 시티칼리지에서 대부분 고학년들이 수강하는 미술 수업을 맡았다. 유난히 열정적이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캐서린의 학생 중에는 아주 특별한 청년이 포함되어 있었다. 휴학 후 이 대학으로 새로 편입해온, 세스라는 이름의 눈이 맑은 남학생이었다. 그는 강의실에 있는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하지만 캐서린은 세스의 독특하면서도 기막힌 그림 실력을 금세 알아보았다. 또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던 세스는 따뜻하게 대하는 캐서린의 진심에 조금씩 응어리진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문제는 고마움과 반가움에서 시작된 그 감정이 점점 과감한 표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스는 다시 대학에 다니고 강의를 듣는 일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화가를 꿈꾸며 대학에서 그림 공부할 날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화재 사고로 사랑하는 친구 에이미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고 이후 세스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왜 에이미는 죽고 자신은 살아남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채 정신을 추스르기도 전에 학기가 시작되어 에이미 없이 혼자 신입생이 되었지만 수시로 떠오르는 사고 장면들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6개월간 그렇게 약물치료를 병행한 집중 치료를 받은 후, 세스는 담당 의사로부터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도 될 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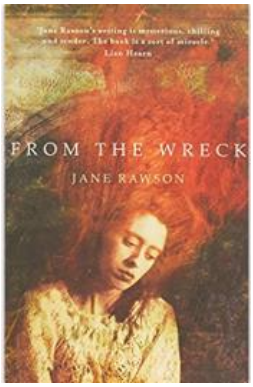
상태가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상담 빈도도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자 용기를 얻은 세스는 다른 학교에서 다시 대학생활을 시작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물론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마다 세계 각지에서 사고로 수십,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만 눈에 들어오고 에이미와 자신이 겪은 사고가 그 위로 겹쳐졌다. 그런 세스에게 캐서린의 수업은 오아시스나 다름 없었다. 학생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챙기는 마음, 그림을 잘 그리건 못 그리건 세심하게 들여다봐주는 캐서린의 수업 방식은 세스가 바라던 것 이상이었다.

캐서린은 불안정하고 자칫하면 무너질 것 같은 유능한 제자를 도와주고 싶었고 세스는 그런 캐서린에게 기대고 싶을 뿐이었지만 캐서린의 남편 마크에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집으로 편지며 선물을 미친 듯이 보내는 세스의 과도한 행동이 마크에게는 불편할 뿐이었다. 급기야 마크는 세스가 캐서린에게 집착한 나머지 남편인 자신을 위협하고 스토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캐서린도 충격에 빠졌을 때,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절망한 세스가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다행히 세스는 구조되어 목숨을 지켰지만 캐서린과 마크 부부는 더 이상 뉴욕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없었다. 시칠리아에서 한동안 지내면서 지난 1년여 간 벌어진 일들을 지워내기로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드넓은 올리브 농장 한 켠에 마련된 시골집을 빌린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이국적이면서도 포근하게 느껴지는 풍경에 푹 빠져든다. 그런데 캐서린이 마당에 딸린 작은 헛간을 작업실로 개조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마을에 도착한 첫 날 나타난 꼬마 소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먼 발치에서 캐서린을 바라보다가도 캐서린이 얼굴을 돌려 쳐다보거나 가까이 와보라고 손짓하면 어느새 달아나버렸다. 희한하게도, 캐서린이 아이를 보는 빈도는 점점 늘어나는데 마크나 이웃들은 아무도 그 아이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름도, 사는 곳도 알 수 없는 소년이 나타날 때마다 캐서린은 속에서 진한 감정이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그런 느낌이 낯설지만 싫지만은 않았다. 캐서린은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런 캐서린을 보면서 마크는 불안해진다. 뉴욕에서 엉망이 된 두 사람의 관계를 겨우 다시 붙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이곳에서, 이상한 아이 하나가 또 다시 아내의 온 정신을 빼앗고 있었다.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마크는 급기야 악몽에 시달리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다. 무엇이 마크를 그토록 괴롭게 만든 것일까? 세스와 이 소년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캐서린과 마크, 세스의 시점에서 세 갈래로 이어지며 점점 긴장감이 더해가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비밀과 거짓말이 숨어 있다. 이탈리아의 멋진 풍경과 독특한 문화가 곳곳에 결합되어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리디아 파지오 시스(Lydia Fazio Theys)는 과학을 공부한 뒤 생계 수단으로 기술적인 글이나 마케팅 글을 쓰면서 소설가로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Marta in the Mirror: Short Story and Screenplay』 등이 있다.



제목 : FROM THE WRECK
가제 : 난파선
저자 : Jane Rawson
출판사: Transit Lounge
발행일: 2017년 3월 1일(호주) / 2019년 4월(US)
분량 : 185 페이지
장르 : SF/문학소설

* 호주 아우렐리우스 상 최우수 SF 부문 수상작
* "어떻게 해야 이 소설을 제대로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예 새로운 비평 용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될 정도다. 작가는 잊혀진 역사에, 생생한 인물들과 외계 생명체의 마음을 결합시켰다.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 소설가 리안 헌
* "낯설지만 마음이 끌리는 이야기. 작가는 무언가를 믿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소설 속 캐릭터를 온전히 믿게 만드는 희귀한 재능의 소유자다." - 「The Australian」

1859년,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 항을 출발한 증기여객선 아드멜라 호가 바다 한 가운데서 좌초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배에 타고 있던 113명의 승객과 선원들은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무려 8일 동안 부서진 잔재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 밤이면 차가워지는 바닷물 속에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 둘 스러졌고 단 24명만이 목숨을 건졌다. 작가는 실제 일어난 이 사고에서 구출된 고조부와 당시 생존자 중 유일한 여성이던 브리짓 레드위스를 주인공으로 삼고, 그 위에 놀라운 상상력을 덧입혀 독창적인 소설을 완성했다. 선박 사고는 그대로 가져오되 생존자를 단 두 명으로 압축시키고 각 장마다 이 둘의 시선을 번갈아 가며 따라가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그 둘의 시선을 번갈아 따라가다 보면 점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사고에서 겨우 살아남은 조지는 물론 그의 아들 헨리의 곁에 계속 머무는 또 다른 생존자, 브리짓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지 힐스가 브리짓을 처음 목격한 건 배 안의 임시 마구간이었다. 이번에 아드멜라 호 승객들이 데려온 여섯 마리의 말들이 나란히 서 있는 그곳에는 유명한 경주마 주피터도 함께 있었다. 파도에 울렁이는 배 위에서 동물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날, 조지는 저녁 식사를 마친 승객들의 식기를 치우다가 크게 울부짖는 말 울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지만 울음소리에서 극심한 불안감을 감지한 그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얼른 마구간으로 향했다. 창고 한 쪽에 마련된 공간을 들여다보자, 잔뜩 쌓인 밀가루 통 사이로 크게 흔들리는 말 꼬리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 때, 조지는 주피터와 마주보고 서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팔을 뻗어 말의 입 주위를 쓰다듬고 있었다. 조지를 놀라게 한 건 말의 반응이었다. 얼어 붙은 듯이 가만히 서서 커다란 두 눈이 여자의 가려진 얼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그러자 여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말의 입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댔다. 그러자 주피터는 숨을 거칠게 내뱉기 시작했는데, 즐겁거나 편안한 느낌이 아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동으로

'포획'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당황한 조지가 걸음을 옮기는 바람에 낡은 나무 바닥에서 큰 소리가 났지만 여자도, 말도 이쪽을 전혀 쳐다보지 않았다.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둘이 소통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후 조지는 마구간에서 본 기묘한 여성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느꼈다. 아드멜라 호 전체 탑승객 중 여성 승객은 딱 열여덟 명이고 조지는 저녁 식사 시간마다 시중을 들었으므로 얼굴을 다 알고 있는데 비슷한 사람을 한 명도 떠올릴 수 없었다. 동료 선원으로부터 그녀의 이름이 브리짓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을 때만해도, 조지는 이 커다란 배가 순식간에 기우뚱대고 이 수많은 승객들이 바다 한 가운데로 떨어져 애타게 구조만 기다리는 사고가 벌어질 줄은, 그리고 이 사고에서 오직 자신과 브리짓만 살아남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기적처럼 구조된 조지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과 굶주림, 추위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던 그 긴박했던 시간들을 잊을 수 없었다. 살려고 안간힘을 쓰다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혼자 살아 남았다는 죄책감은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자연스레 또 다른 생존자인 브리짓이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브리짓은 구조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어떻게든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 싶었던 그는 결혼을 약속한 애인, 엘라이자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 하지만 조지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브리짓은 그의 곁을 내내 떠나지 않았다. 가족들이 키우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함께 살던 그녀는 조지와 엘라이자 사이에서 아들 헨리가 태어나자 아기 몸에 점으로 자리를 잡았다. 다들 신생아들이 갖고 태어나는 모반으로 생각했지만 그 점은 생각과 의지가 있는 생명체, 브리짓이었다. 그녀는 먼 외계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지구를 찾아온, 두족류 생명체로 문어처럼 뼈가 없고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아드멜라 호가 부서질 때 온 몸을 사방으로 늘려 조지를 지킨 것도 바로 그녀였다.

헨리는 자라면서 점을 마치 애완동물을 다루듯이 애지중지 챙기고, 처음에는 웃고 넘어갔던 가족들은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 특히 조지는 소중한 아들의 미래가 정체 모를 점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과민해져 억지로 점을 지우려고 하지만 소용없다. 처음에는 아이의 등에 나타났다가 목으로 점점 올라오는 그 점이 저러다 아이를 집어삼켜버리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마저 들었다. 무엇보다 그 점이 평생 잊고 지내고 싶은 아드멜라 호의 사고를 자꾸 떠올리게 한다는 사실도 조지를 미치게 만들었다. 세월은 계속 흐르고, 바람과 달리 또 다시 비극적인 일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조지는 급기야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 그 때도 브리짓은 그런 조지를 지켜보고 있다. 신비한 스토리 속에서 외계 생명체는 다 위협적이라고 여기는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 외에 모든 것을 의인화하려는 태도를 날카롭게 꼬집으며 결국 모든 생명의 삶은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독특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인 로슨(Jane Rawson)은 『론리플래닛』 등에서 여행작가, 편집자로 일했으며 인터넷 뉴스지 「The Conversation」에서 환경, 에너지 분야 편집자로 일했다. 저서로는 데뷔소설 『Wrong Turn at the Office of Unmade Lists』와 『Formaldehyde』 등이 있다.

제목 : SAVE ME FROM DANGEROUS MEN
가제 : 해결사 니키
저자 : S.A. Lelchuk
출판사: Flatiron Books
발행일: 2019년 4월 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범죄스릴러소설

*** 니나 조지의 『The Little Paris Bookshop』, 가브리엘 제빈의 『The Storied Life of A.J. Fikry』를 떠올리게 하는 통쾌한 여성 사설탐정의 활약**

꽉 들어찬 책장마다 빈틈 없이 꽂힌 책들과 빈 자리가 없어 천장까지 쌓여 있는 더 많은 책들 틈에 앉아 있는 니키 그리핀을 보면 영락없는 책방 주인이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직업이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자를 때리고 괴롭히는 남자들에게 본 때를 보여주고 힘으로 여성을 제압하려는 생각은 두 번 다시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혼내는 일이다. '사립탐정'이라는 그럴듯한 명칭보다 데이트 폭력 해결사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니키의 활약을 그린 이 데뷔소설은 총 두 권짜리 시리즈로 완성될 예정이다.

니키가 일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고 명확하다. 특수교사로 일하는 앤젤라와 정비공인 로버트의 사건만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로버트는 니키를 순전히 술집에서 운 좋게 꼬드긴 화끈한 여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다. 그가 자주 드나드는 술집에 일찌감치 찾아가서 술 몇 잔을 걸치고 그곳에 눌러 앉은 주정뱅이들과 당구 내기를 하던 니키는 표적이 들어서자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했다. 남자들로 우글대는 바에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딱 달라붙는 청바지에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녀를 모두가 주목한 것처럼 로버트도 들어서자마자 니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술을 사겠다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니키에게 접근한 로버트는 약간 틈을 보이자마자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다. 자기 집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니키가 바라던 것이기도 했다.

로버트의 아파트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사진 속에 앤젤라의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3년 가까이 연애를 이어왔지만 한 달 반쯤 전에 사고가 벌어졌다. 모든 연인들이 그렇듯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서로 고래고래 고함치던 상황에서 로버트가 앤젤라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코뼈까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깜짝 놀란 앤젤라는 얼른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에 계단을 내려가다 그만 굴러 떨어져 갈비뼈까지 부러졌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로버트는 구급차를 불러 앤젤라를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앤젤라는 차마 남자친구에게 맞아서 다쳤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다. 몸이 회복될 무렵, 그와 헤어지기로 확고히 마음 먹은 그녀는 옷가지와 짐을 챙기러 로버트의 집에 찾아갔다가 또 다시 봉변을 당한다.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던 로버트는 그럼에도 앤젤라가 떠나겠다고 선언하자, 총을 꺼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다. 실랑이 끝에 가까스로 아파트를 빠져 나온 앤젤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니키를 찾아왔다. 니키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한 로버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침실로 데려가려고 안간힘을 쓴다. 니키는 같은 마음인 것처럼 로버트가 옷을 다 벗도록 한 뒤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다. 강타를 날려 앤젤라가 당한 것과 똑같이 코뼈와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그리고 로버트가 방심하고 있을 때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그가 앤젤라를 찾아가거나 협박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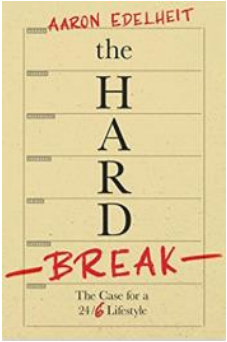
속 시원하고 확실한 일 처리 솜씨 덕분에 의뢰가 끊이지 않는 니키가 다음으로 시작한 일은 좀 더 복잡한 사건이었다. 이번에는 데이트 폭력이 아닌, 회사의 기밀을 직원이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되니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실리콘밸리에 줄지어 선 업체들 중에서도 규모 면에서나 직원 수 면에서 단연 대형 업체로 꼽히는 '케어포'의 직원, 카렌이 니키가 쫓아야 할 대상이었다. 단아하고 우아한 정장 차림에 값비싼 빨간색 포르쉐를 모는 카렌은 30대 초반의 굉장한 미인이었다. 새로운 표적이 된 그녀의 차부터 찾아서 성냥갑 만한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니키는 근처에서 잠복했다. 세 시간 넘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카렌의 차가 어딘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얼른 오토바이에 올라탄 니키는 그리 멀지 않은 어느 한적한 곳의 카페에서 다시 카렌을 발견한다. 오랫동안 사람을 찾고 관찰하는 일에 이골이 난 니키는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도 카렌이 눈에 띄게 초조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조금 뒤, 두 남자가 카페에 들어서고 카렌이 기다리는 테이블에 합석했다. 언뜻 보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남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카렌의 핸드백을 들고 나갈 때, 그리고 두 사람이 나간 뒤 몇 분간 가만히 더 앉아 있던 그녀의 얼굴에서 니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회사가 의심하는 것처럼 카렌이 기밀 정보를 팔고 있다면, 그것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었다. 카렌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순수한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다.

사건을 좀 더 파고들어간 니키는 처음 예상대로 카렌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결국 자신의 신분까지 밝히면서 그녀를 도와주려 한다. 카렌도 니키에게 자신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털어 놓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자세한 내막을 밝히기 전에 결국 카렌은 목숨을 잃고, 니키는 정체 모를 협박범들이 이제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알아챈다. 이들이 사람까지 죽여가며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동시에 목숨을 온전히 보존해야 하는, 두 가지 어려운 과제가 니키의 손에 떨어졌다. 부당하고 잘못된 일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를 찾기 위해 온 몸을 던지는 주인공과 암울하지만 무겁지만은 않은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범죄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S.A. 렐축(S.A. Lelchuk)은 다트머스 칼리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버클리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THE HARD BREAK
가제 : 항상 일하고 있는 당신을 위한 책
저자 : Aaron Edelheit
출판사: Ideapress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5월 28일
분량 : 245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밥줄 유지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 계속되는 야근과 특근에 몸과 마음이 지쳐 오히려 생산성은 하락되지만, 일 해야 하기에 마음은 잠시도 쉴 수가 없다.' 해법은 무엇일까?
* "21세기 가장 중요한 난제인 세상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이것이 커리어 외에 더 많은 것을 구제한다는 사실을 밝힌 필독서" - 베스트셀러 『Can I Have Your Attention?』의 저자 커트 스타인호스트

생산성은 전 세계가 집착하는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직은 회사에 머물면서 장시간 일을 하고 빡빡한 스케줄도 문제 없이 소화해내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한다. 게다가 통신의 발달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사람들과의 연결이 24시간 지속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손에서 전화기를 거의 놓지 않는 생활이 고착화 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며 주어진 1분 1초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는 강박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렇게라도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모두들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식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스물여덟 젊은 나이에 투자 회사를 차리고 경기침체로 모두가 허덕일 때 단 4년 만에 엄청난 수익을 일궈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늘리는 생산성은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그도 눈 코 뜰새 없이 일에만 매달리는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이후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일을 계기로 생산성과 행복한 삶에 관한 탐구를 시작했으며,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을 갖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과 정신적 여유를 되찾는 휴식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저자는 잘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처럼 쉴 때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제대로 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의 경험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가, 유명인, 정치인이 그의 의견을 받아들인 후 생산성 뿐 아니라 인생의 행복까지 향상된 사례도 소개한다.

생산성 향상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대다수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는 줄기찬 노력이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잃어버린 채 불행하다고 느끼고, 궁극적으로는 우울감을 느끼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만다. 저자는 이 책에서 생산성에 관한 이러한 생각을 바로잡고,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

는 해법을 제시한다. 바로 '안식일'을 가지는 것이다.

책은 총 세 부분으로 나뉜다. 1부에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지나치게 쏟아 붓는 업무 방식이 생산성과 개개인의 건강을 얼마나 약화시키는지 밝힌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2부에서는 규칙적인 휴식과 편안한 생활이 뒷받침될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생산성이 배가 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성공과 행복을 불러올 제대로 된 휴식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적시에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개인적인 삶을 버리지 않고 보람과 행복을 모두 거머쥘 수 있는 소중한 팁을 소개한 지침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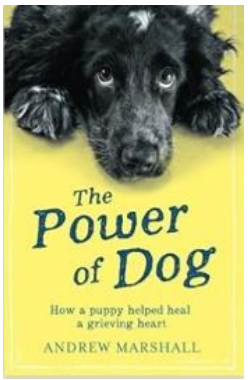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지금까지 해온 것 모두, 그리고 더!
1부. 24시간/7일 돌아가는 삶
1장. 눈물
2장. 덜 일하고 생산성은 높이려면
3장. 크고 작은 오류
4장. 왜 미국사람들은 휴가를 안 좋아할까?
5장. 왜 우리는 과로하고 빡빡한 일정을 우리 손으로 만들까?
6장. 건강과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몫
7장. 기술이 불러온 정신건강의 위기
8장. 우울증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
2부. 열심히 쉬는 것의 가치 (9-19장)
3부. 성공적인 안식일 (20장)
결론: 중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여유

"일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과 오늘날 기술 세상에서 생긴 건강에 해로운 습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꼭 읽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야 할 책!" - 페퍼다인 대학교 법학과 교수, 빅토리아 슈워츠(Victoria Schwartz)

<저자 소개>

애런 에델하이트(Aaron Edelheit)는 FLO 테크놀로지라는 업체에서 수석 전략담당자를 맡고 있다. 개인 투자회사 마인드셋 캐피털(Mindset Capital)과 더 아메리칸 홈(The American Home)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력이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 CNBC,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등에 소개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에서 경영과 투자에 관한 강연을 이어 왔다.



제목: THE POWER OF DOG
가제: 나의 보물, 나의 첫 반려견
저자: Andrew Marshall
출판사: RedDoor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7월 12일
분량: 282 페이지
장르: 회고록

*** 난생 처음으로 반려견을 키우면서 얻은 깊은 위로, 해묵은 고통을 훌훌 털어낸 놀라운 경험**

이 책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사로,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 작가로 활동해온 저자의 책이다. 그러나 그가 보통 써내던 장르의 책은 아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슬픔의 늪에 갇혔다. 오랫동안 영국과 독일 국경을 넘나들면서 사랑을 키워온 사람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 버린 것이다. 게다가 꾸준히 해왔던 일까지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저자는 돌파구를 찾으려 힘겹게 노력한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그에게 새로운 빛이 한 줄기 찾아들었다. 때는 새천년의 시작인 2000년, 마침 마흔을 갓 넘긴 그가 입양한 작은 강아지였다. 저자는 대여섯 살 때부터 생일날마다 반려견을 키우게 해달라는 소원만 주구장창 빌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타이밍만 노리다가 매번 흐지부지 기회를 놓쳤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저자는 오랫동안 벼르던 애완견과의 삶이 실현되기까지 겪은 일부터 새 식구를 들인 과정, 그리고 그 조그마한 생명체가 가져온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 책에서 우리에게 들려준다. 연인을 잃고 상담사를 세 번이나 바꿔가며 노력해도 극복하지 못했던 절망과 극도의 우울함이 작은 두 눈을 반짝이는 혼성 콜리 강아지 '플래쉬'와 함께하면서 자연스레 사라지고, 왠지 서먹하기만 했던 어머니와의 거리감도 극복할 수 있었던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일기 형식으로 진솔하게 전해진다. 책 전반부는 난생 처음 개를 키우면서 저자가 느낀 당혹스러움과 예상치 못한 행복, 갖가지 사건들이 등장하고 후반부는 2011년으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이제 노견이 된 플래쉬의 건강에 조금씩 이상징후가 나타나면서 이를 함께 극복해가는 저자의 여정이 그려진다.

플래쉬가 일으킨 변화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는 저자가 어릴 때부터 떨쳐내지 못한 '늑대 공포증'을 극복한 것도 포함된다. 밤에 자다가 혼자 화장실을 갈 때 털이 북슬북슬한 옷이나 커다란 가운이 걸려 있으면 마치 살아 있는 늑대가 입을 쩍 벌리고 노려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온 몸이 마비될 만큼 극심한 공포를 느꼈었다. 침대 밑에 널찍한 빈 공간을 늑대가 전부 차지하고 있다가 침대 아래로 다리를 내리면 잡아챌 것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떤 적도 많았다고 저자는 전한다. 공포증이 대부분 그렇듯 옆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는 공황 상태에 가까운 공포를 느낀다. 이 늑대 공포증은 저자가 성인이 되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

았는데, 플래쉬는 그냥 안고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플래쉬와 함께 잃어버린 웃음을 조금씩 되찾은 저자는 서섹스 시골 마을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푹 빠져 강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무수한 것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우울증도 서서히 사라지고, 서로 주위를 맴돌기만 하느라 진심을 전하지 못한 채 긴 세월을 흘려 보낸 어머니와의 거리감도 점점 좁혀졌다. 구조견으로 보호 받고 있던 플래쉬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던 저자의 끈끈한 관계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플래쉬의 건강에 하나 둘 문제가 생기면서 또 다시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만다.

현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물론, 아직 한 번도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 꼭 키워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들과 함께, 동물과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교감과 그것이 불러오는 기적 같은 변화를 생생하게 그린 특별한 회고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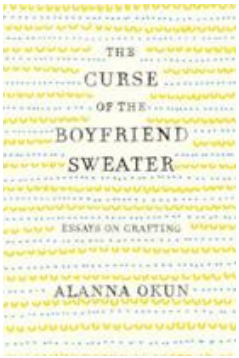
<목차>

이전의 나
1부. 강아지 시절
- 1999년 12월 22일부터 2000년 9월 9일
2부. 나이든 플래쉬
- 2011년 4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이후의 나

<저자 소개>

앤드류 마셜(Andrew Marshall)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I Love You But I'm Not in Love with You』, 스무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How Can I Ever Trust You Again』을 비롯해 열일곱 권의 자기계발서를 썼다. 「메일 온 선데이」, 「데일리 메일」, 「데일리 텔레그라프」에도 글을 기고해 왔으며 런던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심리치료 단체 '마셜 메소드 테라피(Marshall Method Therapy)'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제목 : THE CURSE OF THE BOYFRIEND SWEATER
가제 : 남자친구 스웨터의 저주
저자 : Alanna Okun
출판사: Flatiron Books
발행일: 2018년 3월 20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굿리즈(Goodreads) 선정 '2018년 3월 인기 도서'
* 버즈피드(Buzzfeed) 선정 '2018년 가장 기대되는 신작 도서'
* "뜨개질을 직접 하든 그렇지 않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감동적이고, 굉장히 재미 있고, 배울 것이 많은 에세이" - 『Save the Date』의 저자 젠 돌

누구나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 비상구를 찾는다. 낚시터로 향하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 명상을 하는 사람,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책 속에 푹 빠지는 사람 등 저마다 다른 위안의 방식 중에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있다. 바늘 두 개와 실 뭉치로 옷부터 신발, 모자 같은 의류부터 깔개, 덮개 등 유용한 생활용품까지 뚝딱 만들어내는 뜨개질도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지구상에 뚝 떨어졌을 때부터 늘 뜨개질을 해왔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통제되지 않는 심적인 혼란을 가라앉히는데 뜨개질만큼 효과적인 일은 없었다고 설명한다. 점점 불어나는 듯한 불안과 슬픔, 실연의 상처 같은 부정적인 기분은 물론이고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들뜬 기분이나 황홀한 기쁨. 그리고 괜히 심장이 쿵쾅대거나 너무 지루해서 견딜 수 없는 기분 등, 뜨개질은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감정을 추스르게 한다.

불확실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인 상황에서도 바늘 두 개를 이리저리 움직일 때만은 아직 조금은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음을, 그래서 다시 현실과 싸울 수 있는 에너지가 채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굳이 뜨개질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고민하고 경험한 힘든 시간들과 자신만의 비상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아픔이 반드시 남기는 깨달음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과정이 27장으로 구성된 저자의 진솔한 에세이 속에 담겨 있다.

뜨개질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유명한 '스웨터 징크스'가 있다. 어느 유명 요리사가 개발한 '프로포즈 치킨' 레시피에 그 음식을 애인에게 만들어주면 곧 프로포즈를 받게 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이 뜨개질 징크스는 애인에게 스웨터를 만들어 주면 완성되기도 전에 그 사람과 반드시 헤어진다는 것이다. 당연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된 이야기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저자는 중학교 때부터 만난 남자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직접 뜨개

질로 만들어준 여러 가지 선물들이 그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되짚어본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 정성을 담아 완성한 스웨터에 그런 불길한 징조가 결합된 이유는 어쩌면 만든 사람의 일방적이고 아주 노골적인 애정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나는 이걸 만들 정도로 널 좋아하고, 너의 취향을 간파했어. 그리고 네가 따뜻하게 지내기를 항상 바라. 그러니까 너도 날 이렇게 사랑해줘.' 이런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상대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처럼 뜨개질을 하고, 그 결과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누군가에게 주고, 뜨개질을 배우고 남에게 가르쳐주고, 재료를 고르는 과정에서 깨달은 생각들을 이 책에서 더없이 솔직하게 공유한다. 뜨개질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저자의 시도는 그 이야기를 읽는 우리도 왠지 감추려고만 했던 내면을 용기 내어 살펴보게 하는 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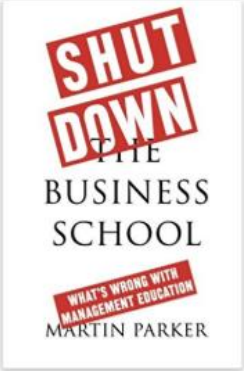
<목차>

바늘에 코 만들기
첫 번째 줄
할머니들만 하는 일이 아냐
끊어진 곳
남자친구 스웨터의 저주
장식 단추, 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에 관하여
뜨개질하기 가장 좋은 장소, 순위별로
바늘을 움직일 때
자, 그러니까 말이야, 왜 여름이 뜨개질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냐면
곡선 만드는 법
(이하 생략, 총 27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알라나 오컨(Alanna Okun)은 작가 겸 편집자로 「버즈피드」, 「브룩클린 매거진」, 「더 헤어핀」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투데이>, <굿모닝 아메리카>, NPR 등 다양한 방송에도 출연했다.

제목 : SHUT DOWN THE BUSINESS SCHOOL
가제 : 경영대학원 없애기
저자 : Martin Parker
출판사: Pluto Press
발행일: 2018년 5월 20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경영/교육



* **"현대사회의 경영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역작. 경영 교과서나 MBA가 미래에 지향해야 하는 참여와 가치 창조,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한다." - Co-operatives UK 사무총장, 에드 마요**

언젠가부터 왠 만한 기업 경영진과 간부들이 MBA라 불리는 경영대학원에 가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같은 추세를 썩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많다. 단기 수익에 집중하고 탐욕을 응원하는 문화를 키운다는 비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대학을 떠올릴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즉 '사회에 공헌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필수 요건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점이다. 우리의 삶이 자본주의 하나에만 달려 있는 것처럼 다른 경제 이론은 약속한 것처럼 제쳐두고 오로지 자본주의 하나만 가르치기 때문이다.

20년 이상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온 저자는, '지적인 사기 집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표현으로 불릴 만큼 심각해진 MBA의 현 상황에 간단한 해법을 제시한다. 바로 경영대학원을 없애자는 것이다.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저자의 주장에는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갖춘 대학원으로 다시 만들자는 제안이 담겨 있다.

유명 대학마다 캠퍼스에서 가장 눈에 띄게 화려하고 웅장하다 싶은 건물은 십중팔구 경영대학원 건물이다. 재학생들에게 사업해서 수익 내는 법을 가르치는 이곳은 대학에서 가장 큰 수익을 거둬들이는 일명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고, 이런 특징이 건물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MBA 출신자들의 공통분모로 여겨지는 출세 지상주의나 졸업장은 있어도 막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은 턱없이 부족한 문제, 모두가 미국식 자본주의를 습득해서 전 세계 경영계가 '미국화' 될 수 있다는 불안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08년 이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 경영대학원이 학문을 가르치는 대신 돈 버는 일에 직접 관여하고 이기심을 대놓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는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복잡한 금융 제도를 조작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너도나도 자구책과 개선 방향을 내놓았지만 경영대학원의 구성과 구조 자체를 뜯어내는 작업을 강력히 주장하거나 시도한 곳은 없었다. 책임과 다양성, 윤리를 강조하는 힘없는 목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다. 저자는 임시방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영대학원의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불평등과 지속 가능성을 각 기업이 나름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곳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업이란 결국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공통의 목표를 위해 각자가 가진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며 노력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일인만큼 저자는 사업과 경영의 기본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영대학원은 조직이 구성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가르치고 기업가와 관리자가 경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곳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그 상세한 방법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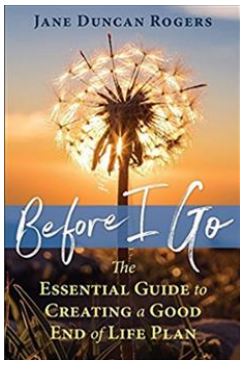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과세법을 배우는 이유가 세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마케팅의 주된 목적이 소비자의 새로운 갈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등 이윤만 추구하는 잘못된 경영 방식을 앞장서서 가르치는 현재 경영대학원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유익한 책이다.

<목차>

서문
1. 경영대학원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 자본주의를 가르치다
3. 경영의 문제는 무엇일까?
4. 경영대학원의 문제는 무엇일까?
5. 경영대학원과 대학
6. '경영'은 대체 무엇일까?
7. 조직체계를 가르치는 학교
8. 조직의 정치학
9.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10. 미래의 경영대학원

<저자 소개>

마틴 파커(Martin Parker)는 1995년부터 워릭대학교, 레체스터 대학교, 킬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현재는 브리스톨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공저자로 참여한 『Fighting Corporate Abuse』가 있다.



제목 : BEFORE I GO
가제 : 죽을 준비 구체적으로 하는 법
저자 : Jane Duncan Rogers
출판사: Findhorn Press
발행일: 2018년 7월 3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가족 중 누구라도 죽음을 맞이했을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필요한 도구를 모두 제공한 책" - 『The Healthy Business Bridge』의 저자 도린 밀러
* "생의 마무리 방식을 계획하면 참 많은 면에서 유용하다. 무엇보다 이 책은 지금 현재의 삶을 가장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매우 실용적인 지침서다!" - 『Shift Happens』의 저자 로버트 홀든

일상을 살다 보면 이 삶이 언젠가 반드시 끝난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마련이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명확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현재에 젖어 아예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당장 닥친 일이 아닌 이상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드라마나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듯이,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곧 그렇게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죽음에 대해,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현재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찾아올지 모를 생의 마지막 순간이 잘 마무리되도록 준비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유서를 쓰고 재산이 있다면 처리할 방법을 떠올리는 것 외에 장례 방식이나 큰 재산은 아니지만 아끼던 물건을 꼭 주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아주 현실적인 부분까지 미리 준비해둔다면 남아 있는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1년 남편이 위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기 전, 지인의 권유로 이와 같은 준비를 마친 후 그 효용성과 가치를 알게 된 저자는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얻은 '떠날 준비하기'의 방법과 필요성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죽음은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지는 주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죽음을 떠올릴 때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삶의 지침서다.

죽은 뒤 어떤 관에 눕혀지길 원하는지, 장례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사용하던 옷과 물건은 어떻게 처리됐으면 좋겠는지, 가족이나 직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서나 자료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등 죽기 전에 한 번 생각해볼 만한 사항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인가, 그냥 대충 처리하면 된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살아온 자취와 흔적을 그렇게 황망히 폐기하고 마치 없던 일처럼 서둘러 없애버리기보다는 남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방식으로 활용되면 죽음을 앞둔 사람도, 그 슬픔을 견뎌야 할 사람들에게도 큰 의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죽음이 임박했거나 시한부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죽은 뒤의 일을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의 삶은 어떠한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저자는 죽음이 남의 일인 것처럼 애써 외면하고 사는 것보다 정서적, 현실적으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한다. 더불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죽음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큰 실례'로 여기는 문화는 모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예의와 존엄을 지키는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고 영원한 헤어짐을 맞닥뜨리기 전에 서로를 더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책 뒷부분에는 죽음을 준비할 때 전체적인 틀을 잡을 수 있는 질문지와 기록 방식, 워크시트 등 다양한 자료가 제공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죽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흥미롭고 유익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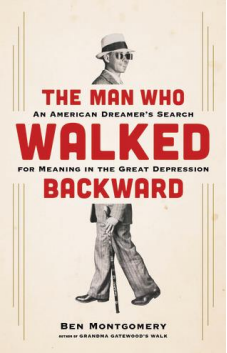
<목차>

이 책 활용법 / 머리말
1부. 준비
1. 왜 지금 해야 할까?
2. 방안에 서 있는 코끼리
3. 왜 골치 아픈 문제로 여길까?
4. 죽음에 관한 대화
5. 애도, 그리고 사별
6. 아이 없이 늙는 것
7. 육신은 무엇일까
8. 조율
2부. 실행하기
머리말
9. 법적, 재정적 사항 관리하기
10. 실질적인 가정사
(이하 생략, 총 17장과 결론으로 구성)

<저자 소개>

제인 던컨 로저스(Jane Duncan Rogers)는 심리치료, 자기계발 분야에서 25년간 일했다. 죽음과 사별 이후의 슬픔을 교육하는 업체 'Before I Go Solutions'를 설립했다.

제목 : THE MAN WHO WALKED BACKWARD
가제 : 거꾸로 걸어 세계일주 한 남자
저자 : Ben Montgomery
출판사: Little, Brown Spark
발행일: 2018년 9월 18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역사



* **"립 밴 윙클, 포레스트 검프처럼 세상에 나가 자신의 진짜 가치를 찾은 괴짜들을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한다. 이들은 모두 허구의 인물이지만, 뒤로 걸어서 세계를 돌아다닌 플레니 윙고는 실존 인물이다. 그가 대공황에 등을 돌리고 모험으로 삶을 찾은 이야기가 재능 넘치는 저자의 글로 생생하게 살아난 책이다." - 『Writing Tools』의 저자 로이 피터 클락**
* **"경기불황이 가져온 절망에 굽히지 않은 어느 텍사스 사람의 삶을 통해 큰 전쟁의 사이에 놓인 미국과 세계의 모습을 모자이크처럼 보여주는 책" - 『One Long Night』의 저자 안드레아 피처**

휴 잭맨이 주연을 맡은 영화 <위대한 쇼맨>에는 제목처럼 최고의 쇼맨이자 현대 서커스의 창시자로 불리는 실제 인물 P. T. 바넘의 삶이 그려진다. 기발한 발상으로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그는 수염 난 여성, 키가 무지막지하게 큰 사람, 꼬마처럼 작은 성인 등 등장만으로 눈을 휘둥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 화려한 쇼를 만든다. 물론 입장권을 팔아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P. T. 바넘이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귀한 동물이나 현상, 사람들을 대중들에게 꾸준히 선보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1920-30년대, 1차 대전 후 가난과 두려움에 찌든 사람들이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승승장구하던 자영업자들이 와르르 무너져 온 나라가 시름과 불안으로 뒤덮인 당시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했다.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한 희한한 일을 실행에 옮겨 대중의 관심을 얻은 괴짜들 중에는 양복에 중절모까지 갖춰 쓰고 뒤로 걸어 세계를 유랑한 남자 플레니 윙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저자는 별난 재주꾼들을 흔히 볼 있었던 시절에 단연 두각을 나타낸 윙고의 도전을 이 책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미국 곳곳을 돌고 대서양 건너 유럽 대륙으로 가서 독일, 터키 등 수많은 곳을 뒤로 걸어 다닌 윙고의 모험을 처음부터 따라가면서 무너진 경제와 전쟁의 여파 몸살을 앓던 그 시절의 모습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함께 전한다.

스물아홉 살이던 1924년에 카페를 열고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플레니 윙고는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재능은 장사에 큰 도움이 됐다. 가게를 넓혀 저녁에는 근사한 식사 메뉴를 제공하는 카페 겸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는 '일요일 저녁, 멋진 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만큼 엄마를 기쁘게 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라는 간단한 광고

문구로 지역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폭주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급속히 성장하던 윙스의 사업도 대공황의 무서운 그림자를 피해갈 수 없었다. 지역 정부가 작정하고 덤벼든 금주법 단속에 적발되어 2년치 가게 월세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 것을 시작으로 윙스의 사업은 악화일로였다. 빚더미에 올라 결국 은행에서 모든 재산을 압류 당한 뒤 하루 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는 대신 사랑하는 아내와 딸아이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산 정상까지 땅콩을 굴려서 올라가는 사람, 군중 앞에서 스턴트를 하는 사람 등 별난 상상력으로 대중의 관심을 모은 사람들이 광고회사나 스폰서의 눈에 띄면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그는 뒤로 걷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닌, 뒤로 걸어 세계를 일주할 생각이었다.

윙스는 뒤로 걸을 때 눈 역할을 해줄 조그마한 거울이 달린 특수 안경을 제작하고 수개월간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 시간을 틈타 8-10 킬로미터씩 뒤로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이렇게 시작된 도전에 가져온 코믹한 사건들과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윙스가 견뎌야 했던 시련들, 여행 범위가 해외로 넓혀졌을 때 그를 적대적인 시선으로 대하던 외국 경찰들의 무자비한 태도 등 탈도 많고 재미 있는 일도 넘쳐났던 모험기를 자세히 들려준다. 웃을 일 없던 시대에 웃음을 전하고 스스로도 다시 희망을 다잡으려 애썼던 한 괴짜의 도전과 그 시절의 역사를 모두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1. 화려했던 나날들
2. 뭐라도 해야 해
3. 더트 데빌, 구체적인 상황
4. 엽서, 그리고 대중의 관심
5. 풀이 가장 파릇하게 자라는 곳
6. 둥글게, 한 바퀴 돌고
7. 돌 더미와 경주
8. 레드 강에 고립되다
9. 그냥 사람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
10. 숭고한 의도
11. 아메리칸 드림 (이하 생략, 총 27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벤 몽고메리(Ben Montgomery)는 「탐파베이 타임스」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뉴스 사이트 Gangrey.com를 설립했다. 플로리다의 한 소년원에서 벌어진 학대 행위를 취재한 보도 시리즈로 2010년 퓰리처 상 지역 보도부문 결승에 오르고 다트 어워드(Dart Award), 케이시 메달(Casey Medal)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Grandma Gatewood's Walk』, 『The Leper Spy』가 있다.